

白貞基의 아나키즘 수용과 항일 의열활동

김명섭*

목 차

- | | |
|---------------------------------|------------------|
| 1. 머리말 | 5. 육삼정의거와 피체, 순국 |
| 2. 백정기의 성장과정과 아나키즘 수용 | 6. 맺음말 |
| 3. 재중국무정부주의자연맹과
동방아나키스트연맹 활동 | 참고문헌 |
| 4. 만주 한족총연합회와 상해
흑색공포단 활동 | <Abstract>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해외 독립운동에서 의열투쟁을 전개한 대표적인 실천적 지식인으로 전북 부안군 출신의 독립운동가 백정기(白貞基, 1896~1934) 의사의 생애와 항일투쟁을 재조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백정기의 항일 의열투쟁은 크게 중국 북경에서 재중국무정부주의연맹과 동방아나키스트연맹 활동을 비롯해 만주 한족총연합회에서의 독립기지 건설활동, 그리고 상해 흑색공포단 활동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특히 그는 해외 3대 투쟁 중 하나로서 아리요시 아키라(有吉明) 주중 일본대사를 암살하려 한 ‘육삼정 의거’의 실행책임자로서 활동했다. 육삼정 의거로 인해 피체된 백정기는 나가사키 이시하야 형무소 수감되었다가 1934년 6월 5일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그가 투쟁일선에서 보여준 열정과 희생정신, 뜨거운 동지애와 인류애는 많은 이들에게 감화와 귀감을 주어 존경과 찬사를 받았다. 백정기의사의 유해는 해방 후인 1946년 일본 나가사키 이시하야 형무소 묘지에서 수습되어 서울 효창공원의 3의사

*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E-mail: hak6278@hanmail.net

묘역에 윤봉길·이봉창 의사와 함께 안장하게 되었다. 1953년 생가인 전북 정읍시 영원면 은선리에 순국기념비가 세워지고, 1963년 건국 공로훈장이 수여되었다.

주제어 : 백정기, 아나키즘, 의열투쟁, 흑색공포단, 육삼정 의거

1. 머리말

전북 부안군 출신의 독립운동가 백정기(白貞基, 1896~1934) 의사는 해외 독립운동에서 의열투쟁을 전개한 대표적인 실천적 지식인이다. 그는 무장독립투쟁의 선구자인 이회영과 의열단 지도자 류자명 등과 함께 의열투쟁을 펼친 항일투사이고, 동방아나키스트연맹과 흑색공포단을 통해 국제적 연대를 꾀한 저명한 활동가이며, 아리요시 아키라(有吉明) 주중 일본대사 암살투쟁인 육삼정의거로 피체되어 옥중에서 순국하여 서울 효창공원 삼의사 묘역에 이봉창·윤봉길 의사와 함께 모셔져 있는 민족지사이다. 특히 그가 투쟁일선에서 보여준 열정과 희생정신, 뜨거운 동지애와 인류애는 많은 이들에게 감화와 귀감을 주어 존경과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일왕폭살을 꾀한 이봉창 의사와 일본군 수뇌부를 폭살시킨 윤봉길 의사에 대한 연구가 풍부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비해, 백정기 의사에 대한 연구는 극히 소략한 실정이다. 백정기 의사의 의열투쟁에 대해서는 그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한 동지인 이회영과 류자명·이정규·정화암·이규창 등에 관한 연구에도 부분적으로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특히 육삼정 의거에 대해서는 1933년 작성된 상해 일본총영사관 심문자료가 2017년 발굴되어 연구의 활기를 띠었지만, 주역인 3의사 중 원심창·이강훈에 대한 관심과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게 현실이다.¹⁾

1) 백정기 동지들에 대한 연구로는 이호룡, 「이회영의 아나키스트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33, 2009 ; 최기영, 「1920~30년대 유기석의 재중독립운동과 아나키즘」, 『한국근현대사연구』, 2010 ; 이호룡, 「류자명의 아나키스트 활동」 『역사와 현실』53, 2009 ; 김명섭, 「류자명의 항일의열활동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52, 2015 ; 김명섭, 「이회영의 중국 망명생활과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59, 2017 ; 박나현, 「아나키스트 정화암의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86, 2024 등을 참조. 육삼정 의거와 3의사에 관한 연구로는 성주현, 「아나키스트 원심창과 육삼정 의열투쟁」 『승실사학』24, 2010 ; 김명섭, 「원심창의 항일 의열투쟁과 육삼정의거」 『백범과 민족운동연구』9집, 2012 ; 박종연, 「일제시기 이강훈의 민족운동과 육삼정의거」 『승실사학』32, 2014 ; 황민호, 「일제하 재중 한인아나키스트 소산 이규창의 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80, 2014 ; 박찬승,

백정기 의사에 대한 연구의 부진과 무관심은 의사에 대한 추념과 선양에만 그친 채 그의 사상 및 항일투쟁에 대한 학술적 검토를 하지 못한 학계의 게으름 탓도 있지만, 그가 생전에 남긴 자료나 유품이 매우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 기념사업회의 선양사업 일환으로 지역 개설서나 평전 등에서 일부 소개되었지만, 객관적 사료에 기초한 학술연구는 석사학위 논문 1편 밖에 없다는 사실은 이러한 실정을 반증한다.²⁾

다행히 생전의 백정기 의사를 기억하는 동지들의 회고문이나 추모사, 약전 보고문 등이 적지 않게 남아있는 편이다. 아울러 그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한 아나키스트 동지들의 회고록에 담긴 일화가 큰 참조가 된다. 다만 유년생활과 성장과정에 대하여는 객관적 자료가 많지 않아 족보와 문증자료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³⁾ 본고는 이러한 기초자료와 동지들의 회고 및 방증자료와 일본경찰 조사보고서 등을 활용해 백정기 의사의 생애와 항일의열투쟁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항일 의열투쟁에 전념한 그의 활동상을 재구성해 보고, 위상을 재검토하려 한다.

『1933년 상해 ‘有吉明공사 암살미수 사건’의 전말』, 『한국독립운동사연구』60, 2017 ; 차현지, 『1930년대 항일아나키스트단체 남화한인청년연맹의 이념과 활동』, 『한국학』42, 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 이민호, 『열도의 독립운동가 원심창 1』, 통일일보사, 2022 ; 박환, 『1930년대 중국의 한인아나키스트와 한인 아나키스트단체-남화한인청년연맹의 결성과 육삼정의거』, 『인문학연구』52, 숭실대 인문과학연구소, 2023. 등을 참조. 백정기 의사에 대한 학술대회는 2024년 6월 5일 구과백정기의사기념사업회 주최로 전북 정읍 시에서 열린 『구과 백정기 의사 순국90주년 기념학술회의』가 처음이다.

2) 이현희, 『무정부주의로 항일투쟁을 펼친 백정기 의사』, 『광복투쟁의 선구자 : 효창원 순국선열 7위투쟁사, 효창순국열사추모위원회, 1990 ; 조광해, 『항일혁명투사 구과 백정기』, (사)구과백정기의사기념사업회, 2009. 석사학위논문은 김규원, 『白貞基의 생애와 의열투쟁』, 단국대학교원 석사학위논문, 2019가 유일인데, 열람이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3) 백정기 동지들이 남긴 회고록으로는 이을규, 『시야 김종진 선생전』, 한홍인쇄소, 1963 ; 정화암, 『이 조국 어디로 갈 것인가』, 자유문고, 1982 ; 이정규, 『우관문존』, 삼화인쇄, 1984 ; 박기성, 『나와 조국』, 도서출판 시온, 1984 ; 이정규 · 이관직, 『우당 이회영 약전』, 을유문화사, 1985 ; 이정식 면담 김학준 편집·해설, 『혁명가들의 항일회상』, 민음사, 1988 ; 이규창, 『運命의 餘燼』, 보연각, 1992 ; 이강훈, 『민족해방운동과 나』, 제삼기획, 1994 ; 류자명, 『류자명 수기-한 혁명자의 회억록』,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9 ; 심국주, 『나의 회고』, 『20세기 중국조선족역사자료집』, 중국조선민족문화예술출판사, 2002 ; 유기석, 『三十年放浪記:유기석회고록』, 국가보훈처, 2010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 백정기의 성장과정과 아나키즘 수용

수원백씨 족보에 따르면 백정기는 1896년 1월 19일 全羅北道 扶安郡 東津面 下長里에서 白南一과 尹玉文 사이에서 2남 2녀 중 맏아들로 태어났다. 초명은 文基, 자는 溶善, 호는 鷗波이다.⁴⁾ 명성황후 민비가 일본 낭인에 의해 잔혹하게 시해당하자, 이에 분노한 의병들이 전국 각처에서 일어난 때이다.

소년 백정기는 7살이 된 1903년, 全羅北道 井邑郡 永元面 隱仙里로 이사하여 성장한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까지 많은 고생을 하며 자란다. 하지만 남달리 머리가 명석하고 성품이 강직하여 남을 위하는 일에 몸을 아끼지 않았고 어른들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었다고 전한다.

13세 무렵인 1908년 8월 부친인 백남일이 33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면서 급격히 가세가 기울어졌다. 이어 그해 10월 부친 생전에 혼인을 약속했던 정읍의 천석꾼인 창녕 조씨 문중 曹盛承의 맏딸인 15세의 曹八洛 여사와 혼인하였다. 당시 처가에서는 사위의 가난한 살림을 도우려고 많은 재산을 보내려 했지만, 13세 어린 나이의 백정기가 거절했다고 한다. 혼인 후 정읍군 영원면 은선리로 이주함에 따라 소성면 흑암리의 瀛州精舍에서 체계적인 학문 습득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당시 호남의 명문가 자제인 백관수(22세), 김성수(20세) 등과 같이 공부했다고 한다.⁵⁾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이 일본에 강제병합되는 국치를 맞아 영주정사의 高麟柱 학감과 백정기의 동학들이 “망국제를 지내고 대성통곡을 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이 무렵 그의 민족정신이 이 곳에서 키웠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⁶⁾

백정기가 처음으로 일본 경찰에 연행된 일은 그의 나이 16세가 된 1911년경으로 알려졌다. 연행된 사유는 당시로서는 거금인 300원을 소지했다는 혐의인데, 누군가 이를 경찰에 밀고하여 피체된 것이다. 쌀 80가마에 해당하는 거금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어디에 쓸 계획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부친(또는 장인)에게서 받은 돈이라 해명하여 방면되었다고 한다. 이어 1914년 말(또는 1915년 초) 겨울 무렵 정읍 영원면 마을에 일본 순사가 나타나 농가의 안방에 들어가 물레를 발로 부순 만행을 본 백정기가 그를 주먹으로 치고 발길질했다고 한다. 이 일로 인해 ‘유괴죄(誘拐罪)’라는 죄명으로 정읍지방법원지청에서

4) 水原白氏大同譜編纂委員會 編, 『水原白氏大同譜 - 文敬公派』, 1997년.

5) 김재영, 『전라북도 근현대인물이야기』, 전라북도교육청, 2015.

6) 심극추, 「나의 회고」, 『20세기 중국조선족역사자료집』, 중국조선민족문화예술출판사, 2002, 196~197쪽 ; 조광해, 『항일혁명투사 구과 백정기』, 국민문화연구소, 2009, 47쪽.

기소유에 처분을 받게 되었다.⁷⁾ 일본 경찰의 요시찰대상자가 되어야 했던 20세의 백정기는 본가로 들어갈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이웃마을 문중재실이나 창고 또는 향아리 속에 몸을 숨기며 도피생활을 해야 했다고 한다.

1919년 3월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대한독립만세 투쟁에서 백정기는 도피신세이었기에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은밀히 서울과 고향을 오가며 만세시위를 응원했을 것이란 추정만 있을 뿐이다. 후배 동지인李何有가 1949년 쓴 <백정기 의사 약전>에 그 일단을 찾아볼 수 있다.

(백정기 선생은)3·1운동이 폭발되려 할 기미(1919년) 2월에 상경하였다가 이 운동이 활발히 전개됨을 보고 급속히 귀향하여 향리의 동지들을 규합하여서 “일본이 조선을 강탈한 것은 결국 청일·러일 양 전쟁에서 피와 재력으로 된 것이니 우리도 우리의 독립과 자유를 찾자면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될 것이니 동지들은 반드시 무장 대기하자.”고 동지들과盟誓하였다. 그때에 선생은 24세의 열혈청년이였다.⁸⁾

그러던 중 백정기는 1920년 겨울 군자금 조달을 위해 경성에 잠입했다가 일본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本町경찰서에 구금된 적이 있는데, 서울 출신의 광부로 신분을 속이고 변성명을 해 무사히 방면되었다고 한다. 이는 후배 동지인李何有의 약전을 비롯해 이정규의 행장에 게재되어 있다.

기미(1919년) 8월에 동지 4인과 같이 경성·인천에 잠복하여 일대 파괴운동을 계획하다가 사전에 적에게 탐지된 바 되어 부득이 만주奉天(심양) 지방으로 피신하였다. 익년(1920년) 겨울에 재차 경성으로 들어와서 자금조달에 분주하던 중 이듬해(1921년) 봄에 경성本町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변성명에 일 광부로 변장하고 있었던 만큼 본적만 행적을 속이어 다행히 방면되고 다시 경향 각지를 잠행하다가 北京으로 건너가서 그곳에다 운동의 중심으로 두고 국내 동지들과 연락하여 선전·파괴 양면의 운동을 획책하면서 그 간에도 5~6회를 본국에 출입하였다.⁹⁾

7) 在尙海 總領事보고서, <有吉公使暗殺陰謀不逞鮮人一味檢擧에關한件>(1933.03.27.)

8) 李何有, <백정기의사 약전>(朴永朗·金舞根 공편, 『독립혈사』1권, 서울:문화정보사 발행, 1949년).

9) 李何有, <백정기의사 약전>(朴永朗·金舞根 공편, 『독립혈사』1권, 서울:문화정보사 발행,

이후 그의 행적은 1933년 3월 ‘아리요시 아키라(有吉明)공사 암살사건’으로 피체된 후 일본 검찰의 심문에 대해 스스로 밝힌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大正 10년(1921년) 일본으로 도향하여 山梨縣 甲府에서 노동에 종사하는 한편, 사회주의의 연구에 몰두하다가 그해 5월 상경하여 東京府下 新宿 淀橋町에서 사회주의자 이헌(李憲), 마명(馬鳴) 외 2,3인의 사회주의자들과 동거, 노동에 종사하였다. 大正 12년(1923년) 8월 26일 東京을 출발, 일단 귀향하였다.¹⁰⁾

백정기의 진술을 통해 그가 1921년 봄 일본으로 건너가 야마나시(山梨)현 고후(甲府)시에서 약 2개월동안 자유노동자로서 생활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해 5월 도쿄 신주쿠(新宿)로 내려가 당시 저명한 노동운동가로 조선고학생동우회를 창립한 李憲(후일 재일노총 초대 위원장)과 조선노동동맹회 실행위원 馬鳴(본명 鄭宇洪, 북풍회 창립멤버) 등과 동거하면서 신사상을 연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마명이 이헌을 비롯한 사회주의자들과 신주쿠에서 서점 平文社를 운영하며 노동단체 지원하는 활동에 종사한 사실로 미루어 백정기 역시 이곳에서 생활했을 것으로 여겨진다.¹¹⁾

청년 백정기는 일본 도쿄 신주쿠의 평문사에서 노동운동과 사상활동을 하는 동지들과 함께 생활하며 신사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1933년 3월 ‘有吉明공사 암살투쟁’으로 피체된 후 상해 일본총영사에서 작성한 검찰의 <예심종결결정>에도 적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大正 12년(1923년) 5월경 東京 淀橋에서 자유노동에 종사 중 사회주의자 등과 이것을 연구 토론하고 또 크로포트킨 저 빵의 약취, 大杉榮 발행의 신문 自由勞働 등을 읽고 무정부주의에 호의를 품고...¹²⁾

또한 재일 한인 아나키스트들의 기관지인 《黑色新聞》(1933년 12월 21일자)

1949년) ; 이정규, <구과 백정기열사 행장>『우관문존』, 221쪽.

10) 在 상해 총영사보고서, <有吉公使暗殺陰謀不逞鮮人一味檢舉에關한件>(1933.03.27.)

11) 평문사에서 생활하며 신사상을 수용했다는 주장은 백정기가 일본에서 귀향할 당시 그의 필적이 남겨진 일본어판 『세계사상대전집』14권을 갖고 들어온 사실과도 부합한다 (김규원, 『白貞基의 생애와 의열투쟁』, 단국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11~13쪽).

12) <예심종결결정>(1933.03.27.), 4쪽. 여기서 大杉榮의 주관으로 발행된 잡지인 《自由勞働》은 《勞働運動》의 오기로 보인다.

에 실린 <3동지의 약력>이란 글에도 유사한 내용이 실려 있다.

東京에서 자유노동 일시 몸을 감춘 일도 있는데, 君이 <상호부조론>·
<빵의 약취> 등을 讀하고, 무정부주의에 공명한 것도 그때라하며...¹³⁾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백정기는 일본 평문사에서 사회주의를 수용한 동지들과 사상 관련 서적을 탐독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당대의 저명한 러시아 사상이자 크로포트킨의 저서인 『상호부조론』, 『빵의 약취』 등을 읽고 일본의 대표적 아나키스트인 오스기 사카에(大杉榮)가 주관해 발행하는 잡지 《勞働運動》 등을 탐독하며 아나키즘을 수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사상수용 과정을 통해 백정기는 이후 중국 북경에서 이회영과 류자명, 이을규·정규 형제 등과 동지적 관계를 맺음과 동시에 한인 최초의 아나키스트조직인 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에 가입하고 평생 아나키스트 실천가로서 활동하게 되었다. 이후 백정기의 행적은 이정규의 행장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단기 4256년(1923년) 여름에 선생은 계획하는 바 있어 본국 경유 東京으로 渡去하여 하야가와(早川) 수력발전소 공사장에서 노동자로 변장 은신하여 일왕 암살을 계획하다가 불의의 東京 震災로 인하여 동지를 잃고 부득이 피난민에 섞여 다시 본국을 경유, 단기 4257년(1924년) 4월에 北京으로 망명하였다.¹⁴⁾

3. 재중국무정부주의자연맹과 동방아나키스트연맹 활동

백정기가 언제 중국 북경으로 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회영이 그를 북경에서 ‘참다운 사상적 동지’로 맞은 1923년 가을 이전인 것으로 보인다. 상해 임시정부를 떠나 북경에서 신채호와 김창숙, 의열단의 류자명 등과 매일 만나 독립운동의 방향을 깊이 논의하고 있던 이회영은 정화암과 이을규·정규 형제 등 젊은 활동가들과 함께 임시정부와 공산주의를 넘어설 독립운동 방향과 새로이 건설될 나라의 방향까지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그런 가운데 이회

13) 「3동지의 약력」 《흑색신문》 제23호(1933년 12월 21일).

14) 이정규, <구파 백정기열사 행장> 『우관문존』, 221~222쪽. 이정규가 ‘1924년 4월 北京으로 망명’했다는 회고는 이은숙의 회고와 비교해 볼 때 1923년 가을의 착오로 여겨진다.

영은 1923년 가을에 이르러 자신도 자유연합주의의 이상과 조직이론을 가진 아나키스트임을 자임하면서 진정한 독립운동은 아나키즘 사상에 의한 자유연합적 무장독립투쟁임을 말했다고 한다.¹⁵⁾ 이회영이 이을규·정규 형제와 정화암·백정기 등을 만나 아나키즘을 받아들일 당시의 모습을 부인 이은숙은 이렇게 회고했다.

계해년(1923년)을 당하니 생활난은 매일반이라....(중략)...하루는 夢事를 얻으니, 가군께서 사랑에서 들어오시며 희색이 만면하여, “내 일생에 知己를 못 만나 한이더니, 이제는 참다운 동지를 만났다.” 하시며 기뻐하시기에, 내가 무슨 말을 하려다가 홀연히 깨니 남가일몽이라. 곰곰 몽중에 하시던 말씀을 생각하며, 또 어떤 사람이 오려나 하였더니, 그 날 오전쯤 해서 李乙奎씨 형제분과 白貞基씨, 鄭華岩씨 네 분이 오셨다. 그날부터 먹으며 굶으며 함께 고생하는데,,(중략)..선생님(이회영-편자 주) 모시기를 당신네 부모님같이 시봉을 하며 지내는 것이 우당장 사후까지도 여일하시다.¹⁶⁾

부인의 기록과 함께 아들 이규창의 기억도 유사하다. 학교에서 돌아온 자신 앞에서 이회영이 방에 들어와 부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수년 만에 참다운 사상과 독립운동의 동지를 얻었으니 참으로 내 맘이 기쁘다”면서 환한 얼굴을 하였다고 한다.¹⁷⁾ 이로 보아 백정기는 1923년 북경으로 가 처음으로 이회영과 만나 사상적 공감을 나눈 것으로 보인다.

이회영은 임시정부의 외교활동이나 준비론과 달리 민중의 직접행동에 의한 항일투쟁을 전개하고, 공산주의세력에 맞서 올바른 독립운동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의 결성을 구상하였다. 단순히 몇몇 동지를 모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독립운동 진영의 모순을 비판하고 올바른 운동방향을 널리 알리려 했다. 이에 젊은 동지들이 조직활동을 위한 자금조달에 나섰다. 1923년 늦가을 북경의 고급주택가인 모아호동(帽兒胡同)에서 일어난 강탈사건은 운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백정기와 정화암, 이을규·정규 형제의 교육지책이었다.¹⁸⁾

15) 이정규·이관직, 『우당 이회영 약전』, 76~79쪽.

16) 이은숙, 『민족운동가 아내의 수기』, 정음사, 1975, 46쪽.

17) 이규창, 『운명의 여신』, 71쪽.

18) 정화암, 『어느 아나키스트의 몸으로 쓴 근세사』, 56~60쪽.

어렵게 자금이 모아지자, 이회영은 젊은 동지들을 적극 규합해 조직결성과 선전활동에 착수했다. 때마침 이회영의 집에 정화암과 이을규·정규 형제와 백정기가 함께 기거하게 되었다. “정의감이 강하고 남을 잘 이해하고 동정심이 강한” 백정기는 부정을 미워하고 의분이 강한 ‘행동파’ 열혈청년이었기에 이회영이 적합한 인재로 꼽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여러 날 자유연합주의 이론에 맞는 조직의 결성과 활동방향을 토론한 결과, 4월 20일 북경 이회영의 집에서 류자명·정화암·백정기·이을규·이정규 등 6명이 在中國無政府主義者聯盟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¹⁹⁾

이들은 조직결성 후 석판 순간지로 『正義公報』를 발행해 자신들의 운동노선을 천명했다. 잡지는 이회영의 편집방침에 따라 중앙집권적 공산주의와 독립운동 진영내의 파벌싸움을 모두 비판하고 독립운동의 이론을 제공하였다.²⁰⁾ 『정의공보』는 순 한글 석판 순간지로 매월 1일과 11일, 21일자로 발행되었다. 내용은 ‘현사회를 타파하고 혁명정신을 발휘케 함’으로 매우 충실했다고 한다. 9호까지 발행되었지만, 자금난 때문에 부득이 휴간하게 되었다.²¹⁾

활동자금의 부족에 이어 생활난도 겹치게 되니, 이회영은 단원들과의 논의 끝에 당분간 각자 분산해 활로를 찾아볼 것을 제안했다. 백정기와 정화암도 이미 그런 생각을 갖고 푸젠성(福建省)의 중국 동지들과 연락을 하던 중이므로 그의 뜻에 따랐다. 이회영과 류자명은 북경에 남아 국내와 연락을 취하며 자금 조달 활동을 하기로 했고, 이을규·이정규·백정기·정화암은 상해로 가기로 했다.²²⁾

1924년 10월 백정기는 상해 曹家渡에 있는 제법 규모가 큰 영국인 경영의 주물공장에 취업하였다. 김원봉과 친분이 있는 이 공장의 工程士 유태계 독일인인 마첼(Machall)²³⁾은 한국 독립에 많은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었으며 백정기와 의열단의 이기연 등에게 폭탄제조 기술을 전수하였다. 의열단의 의열투

19) 이정식 면담 김학준 해설, 『혁명가들의 항일회상』, 1988, 274쪽 ; 이정규, 『우관문존』, 1984, 4쪽.

20) 이정규·이관직, 『우당 이회영 약전』, 80~81쪽 ; 『한국아나키즘운동사』 288~289쪽.

21) 「<正義公報> 창간」 《조선일보》 1924년 5월 19일자 ; 정화암, 『어느 아나키스트의 몸으로 쓴 근세사』, 56~60쪽. 『정의공보』는 현재 한편도 전해지지 않아 그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다만 『先鋒』이란 잡지의 1924년 10월 20일자 <북경에 있는 고려인의 최근 형편>이란 기사에 따르면, “시사비평을 주비로 하는 『정의공보』가 비밀리에 발행되다”고 언급되어 있다(박환, 『식민지시대 한인아나키즘운동사』, 선인, 2005, 37쪽).

22) 이정규·이관직, 『우당 이회영 약전』, 80~81쪽.

23) 의열단의 폭탄제조 공장 기술자인 이 사람에 대해 박태원의 『약산과 의열단』에서는 ‘헝가리인 마자르’로, 김산의 『아리랑』에서는 ‘독일인 마르틴(Martin)’으로 불렀다.

쟁에 사용된 폭탄의 대부분은 이 공장에서 만든 것이라 한다.²⁴⁾ 그러던 중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중국인 工頭와 충돌을 빚게 되었고, 그 수습책으로 백정기가 공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이후 상해전차공사에 검표원으로 재취업하였다가 철공장 중심의 노동운동에 참여하였고, 5·30운동 때에 조직된 上海工團聯合會에도 적극 활동하였다.²⁵⁾

아울러 그는 상해 공공조계의 일본 구역에 사는 밀정 金昌洙를 처단하려고 권총을 친구를 빌리려다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단도로 찔러 상처를 입혔다. 이어 1925년 12월 10일 그는 김종진·다물단원 李某와 함께 임정 요인인 呂運亨을 찾아가 크게 질책하며 ‘철권의 일격을 가’했다고 한다. 당시 상해에서 여운형이 일본 낭인과 중국 친일정객들과 상종한다는 풍설이 돌았는데, 마침 이들 친일인사들이 인도 독립운동가와 함께 아세아민족대회 개최를 계획하며 여운형과도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이를 확인하려다 벌어진 일이었다.²⁶⁾

1926년 상반기에 백정기는 의열단 참모를 맡은 류자명과 함께 의열단 활동에 참여하였다. 그가 의열단에 정식 입단했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백정기가 1926년 3월 14일 廣東省 廣州의 모처에서 열리는 의열단 제1차 전국대표대회에 참여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의열단을 레닌주의에 입각한 혁명정당으로 바꿔보려는 의도로 67개조에 달하는 규장을 추진하려는 이 대회에 대해 류자명이 맹렬히 반대하여 홀로 상해로 돌아가 버렸고, 백정기도 크게 실망해 1,200km에 달하는 거리를 걸어서 귀로했다. 그로부터 백정기는 “의열단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끊었다”고 한다. 상해로 귀환한 백정기는 곧 임정의 김구를 찾아가 진로를 협의하였고, 이런 인연으로 김구는 백정기에게 전차회사 검표원으로 취업하도록 알선해 주었다.²⁷⁾

이후 1926년경 이회영 일가가 천진의 프랑스조계지 大吉里로 이주하게 되자, 상해에 있던 백정기도 천진으로 옮겨 살았다. 이회영의 막내아들 이규창은 “상해에서 이을규·이정규·백정기·정화암·이상일·권계옥(권기옥의 오기)·이영무·이기연 등 여러분이 당도하니 식구가 많아졌다.”고 당시를 회고한다.²⁸⁾ 백정기

24) 이정식 면담 김학준 해설, 『혁명가들의 항일희상』, 1988, 81쪽.

25) 정화암, 『어느 아나키스트의 몸으로 쓴 근세사』, 62~63쪽.

26) 「여운형씨 重傷說」 《시대일보》 1925.12.17.; 이을규, 『시아김종진선생전』, 한홍인쇄소, 1963, 30~32쪽. 여운형을 찾아가 ‘충격을 가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신문자료와 이을규의 회고에는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나온다.

27) 정화암, 『어느 아나키스트의 몸으로 쓴 근세사』, 147~148쪽; 조광해, 『항일혁명투사 구과 백정기』, (사)구과백정기의사기념사업회, 2009, 146~150쪽.

는 이곳에서 이회영 일가와 함께 생활하면서 1926년 12월 일어난 羅錫鑄 의사의 동양척식회사 투탄사건에 관여하였다. 나석주 의거는 1925년경 내몽고 包頭에 무관학교를 설립하려는 김창숙이 국내로 잠입해 군자금들을 모았다가 상해의 김구로부터 의열단원 나석주를 소개받으면서 비롯되었다. 김창숙은 류자명을 통해 폭탄과 권총 등을 구입하였고, 이를 류자명이 천진의 이회영 집에 맡겼다가 의열단 동지 李承春(이명 李化翼)이 되찾아갔다.²⁹⁾ 이규창은 직접 목격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진술하였다.

天津 大吉리에 얻어 놓은 집에 여장을 풀고 그간 이별하였던 회포를 나누시며 또 새로운 동지들과 다시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白貞基 선생이 큰 가방 하나와 보온통 5개를 보고 부친께 무어라 말을 하시고, 나보고 규호는 저 보온통을 절대로 만지면 안 된다고 하기에 나는 백 선생을 쳐다보고 대단히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내 입에서 혀를 빼내고 고개를 흔들었다. 그랬더니 “너 참으로 큰일 날 놈이구나. 네가 무엇을 안다고 그런 표정을 짓느냐”고 하니 나의 말이 “나는 다 알고 있어요. 무서운 것이지요?”하였다. 보온통에는 과연 무서운 것이 들어있었다. 폭탄들이었다. 보온통 1개에 폭탄 2개씩이 들어있어 폭탄이 모두 10개나 된다. 꼭 보온통 같이 보여 누가 의심할 수 있겠는가....큰 가방 안에는 권총 15정이 들어있었다. 이것은 다 상해에서 사 가지고 온 것이었다. 이 폭탄과 권총이 훗날 나석주 의사의 의거에 사용될 줄이야...³⁰⁾

1926년 11월 백정기는 상해로 돌아와 許烈秋(본명 鄭致和)·陳壽麟 등과 함께 전차회사에 취직해 일했다. 이 무렵 폐병에 걸린 의열단 단원이 북경으로

28) 이규창, 『운명의 여신』, 87쪽. 여기서 權桂玉은 權基玉(1901~1988)의 필자 오기이다.

29) 이규창은 당시 이회영의 집에 보관된 폭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1926년 초 비밀리에 유자명(柳子明)선생이 밤에 부친을 뵈고 간 후 수일이 지나서 처음 보는 분이 왔는데 소중히 보관한 물건을 주시며 잘 사용하여 성과를 기대한다고 하시며 이는 절대로 비밀리에 붙이라고 하셨습니다. 후에 알았지만 물건을 가져오신 분은 이승춘(李承春)씨며 유자명선생과 의열단(義烈團)의 동지이다. 그때 바로 김창숙(金昌淑)씨가 천진(天津) 일조계(日租界) 부귀호동(富貴胡同) 유각집의 주인 박모씨 뒤풀이에 은거(隱居)하며 나석주(羅錫鑄)열사(烈士)의 의거를 모의하는 시기였다....이런 곳에서 나석주(羅錫鑄) 열사(烈士)가 어마어마한 대사건을 모의 하였다고 상상이나 하였겠는가.” 이러한 사정을 이규창은 1936년 경성형무소에서 입소하여 이승춘에게 직접 들은 얘기라 진술하고 있다(이규창, 『운명의 여신』, 107~108쪽).

30) 이규창, 『운명의 여신』, 88쪽.

부터 상해로 오게 되자, 백정기는 그와 함께 숙식하며 돌봐주었다. 백정기는 동지에 대한 간호와 생계유지를 위해 金杜奉의 도움을 받아 아이스크림 장사에 뛰어들기도 했는데, 이때 본인도 과로 탓에 폐병을 얻고 말았다. 폐병증세가 심각해진 백정기는 결국 쓰러져 김두봉의 셋방집에 몸져눕게 되었다.³¹⁾

이 무렵 백정기는 이정규의 북경대 동창이며 북건성 유지인 중국 동지 秦望山·梁龍光 등의 제청으로 북건성 泉州지역에서 전개된 농촌자위군 양성계획에도 참여하였다. 봉건지주와 토비, 일본 자본의 침탈을 막고 농민 스스로 자위군을 만들려는 민단편련처 운동은 중국국민당의 지원과 일본 아나키스트 이와사 사쿠타로(岩佐作太郎) 등 3국 동지가 합작하여 閩南25縣民團編練處라는 조직으로 성장하여 농민군을 계몽육성하고 군사훈련을 시키도록 하였다. 하지만 토비의 공격과 자금난, 일본 영사관의 방해공작 등으로 인해 혁명근거지 구축 사업은 실패하고 1928년 5월 상해로 돌아오고 말았다.³²⁾

1928년 3월 상해에는 먼저 돌아온 柳基石(일명 柳恕)과 이을규·정규를 중심으로 한 在中國朝鮮無政府共產主義者聯盟이 조직되었는데, 백정기도 이에 참여하였다. 이 단체는 그해 6월 1일 기관지 『탈환(奪還)』을 창간해 국내외 동지들에게 발송하였다. 『탈환』은 1928년 6월 15일 2호를 발행한데 이어 1930년 4월 20일 9호까지 발간되었다.³³⁾

한편, 1927년 9월 하순경 상해의 프랑스 조계지에서는 한국과 대만·안남(베트남)·중국·일본 등지의 아나키스트들이 처음으로 모여 無政府主義東方聯盟(이하 ‘동방연맹’)을 조직하였다.³⁴⁾ 이 단체는 중국 아나키스트들의 발의로 6개국 대표자 120명이 회합하였는데, 한인 대표로는 신채호와 李弼鉉(일명 李志永) 등 2명이 참석하였다. 이들은 폭탄제조 기사를 초빙해 폭탄과 총기를 제조하고 각자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을 취하기로 했으며, 본부를 상해에 설치하기로 결의했다.³⁵⁾ 신채호는 사업에 소요될 자금을 조달할 계획으로 北京 郵務

31) 이정규, 『우관문존』, 1984, 4쪽 ; 정화암, 『어느 아나키스트의 몸으로 쓴 근세사』, 147~148쪽. 백정기의 의열단 관계와 폐결핵을 얻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김영범, 『의열단도 아닌, 김구파도 아닌, 孤高獨立의 백정기 의사』(『구파 백정기 의사 순국90주년 기념학술회의』발표문, 2024.6.5.)를 참조.

32) 이정규, 『又觀文存』, 174~208쪽 ; 정화암, 『어느 아나키스트의 몸으로 쓴 근세사』, 88~89쪽.

33) 현재 확인된 『탈환』의 호수는 창간호(1928.6.1.)와 증간호(1928.6.15.), 4호(1928.12.1.), 7호(1930.1.1.), 9호(1930.4.20.) 등이다. 각호별 중요목차와 내용에 대한 분석으로는 박환, 『식민지시대 한인아나키즘운동사』, 선인, 2005을 참조.

34) ‘朝.臺.安.中.日 無政府主義聯盟, 天津에 모여 5地대표로 東方問題를 決議’《조선일보》1927년 11월 30일자.

35) 《조선일보》1928년 12월 28일자 ‘各 民族代表 120명의 東方無政府聯盟’. 정화암은

管理局 외국위체계에 근무하던 동지 林炳文에게 위체를 발행하게 해 이를 대만의 기룡우체국에서 찾으려다 체포되었다.³⁶⁾

동방연맹은 1928년 6월 14일 上海 프랑스 조계지 李梅路에 위치한 華光醫院에서 한·중·일 동지들의 회합을 가졌다. 이들은 조직준비회를 만들고 ‘제국의 국체를 변혁할 목적으로’ 東方無政府主義者聯盟(이하 ‘동방A연맹’, O.A.F)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연맹은 “중국·베트남·인도·필리핀 등과 기타 6개국 지방의 유지대표를 소집해 개최”했으며, 대회에 참석한 “백 수십명의 각국 유지들에 의해서 이 연맹의 정식 결성을 보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원로 아나키스트인 이회영은 이 대회에 〈한국의 독립운동과 무정부주의운동〉이라는 제목을 글을 보내 격려하였다. 그는 한국의 아나키스트 운동이 곧 진정한 민족해방운동이며, “한국에서의 진정한 해방운동, 즉 무정부주의운동은 곧 독립운동”이라 밝히고, 이번 동방 대회에서 각국의 동지들은 한국의 독립운동을 적극 성원해달라고 호소하였다.³⁷⁾ 연맹에는 중국인 秦望山을 비롯해 한인 이을규·류자명·백정기·이석규·衛惠林, 일본인으로는 다케 료우지(武良仁)·시라야마 히데오(白山秀雄)·사노 이지로우(佐野一郎, 일명 田華民·吉田)와 야다베 무우지(谷田部勇司, 일명 吳世民), 미국인 하워드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³⁸⁾

동방A연맹 서기국은 첫 사업으로 1928년 8월 20일 기관지 《東方》을 창간하였다. 원로 아나키스트인 이회영이 창간호에 목란을 게재하여 호평을 얻었다고 한다. 이정규는 〈동방무정부주의자 여러분에게 고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여 동양 제국 동지의 규합·단결을 강조하였다. 《동방》의 편집위원 중 조선대표의 일원으로 백정기가 참여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곧 과로와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폐병이 재발하여 북경의 香山에서 1년간 요양을 해야 했다.³⁹⁾

동방연맹은 그러나 서기부 위원을 맡고 있던 이정규와 아카가와 게이라이

無政府主義東方聯盟을 발의한 중국 아나키스트가 秦健이며, 회의도 南京에서 열렸다고 회고했지만(이정식 면담, 『혁명가들의 항일희상-정화암 편』, 민음사, 1988, 278~279쪽), 이는 東方被壓迫民族聯合會와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정화암은 1928년 5월 南京에서 東方無政府主義者聯盟이 조직되었다고 회고했지만(정화암, 『어느 아나키스트의 몸으로 쓴 근세사』, 88~89쪽), 이 역시 東方被壓迫民族聯合會와 無政府主義東方聯盟을 혼동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36) 『한국아나키즘운동사』, 310~312쪽 ; 김명섭, 『신채호의 무정부주의동방연맹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80집, 2017, 174~180쪽.

37) 《自由聯合新聞》 제32호(1929년 2월 1일) ; 《동아일보》 1929년 2월 16일자 ; 이정규, 『又觀文存』, 57~58쪽.

38) 경기도지사, <無政府主義者 李容俊 取調의 件>(1939.04.27.)

39) 《동아일보》 1929년 2월 16일자 ; 이정규, 『又觀文存』, 57~58쪽 ; 167쪽.

(赤川啓來)가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되면서 급격히 위축되었다. 이들은 일본 영사관의 유인책에 빠져 체포되고 말았고, 각각 일본과 국내로 압송되고 말았다. 일본 검찰은 그에게 치안유지법 위반혐의로 4년을 구형하였지만, 징역 3년을 선거 받았다.⁴⁰⁾ 서기부원 이정규의 체포에 이어 《동방》의 편집위원 백정기도 건강악화로 1년간 상해 서가회의 결핵요양소로 요양을 떠나게 되어 활동을 이어가지 못했다.⁴¹⁾

4. 만주 한족총연합회와 상해 흑색공포단 활동

백정기의 북만주 독립기지 건설활동은 1926년 가을 중국 雲南省 昆明의 雲南軍官學校를 우수하게 졸업한 金宗鎭이 천진의 빈민가에서 망명생활을 하던 노혁명가 이회영과의 ‘사상담화’를 한 후 만주 독립기지 건설계획을 세우면서 비롯되었다. 북만주 목단강에서 6촌형인 신민부의 백야 김좌진 장군을 만난 김종진은 본격적인 독립전쟁을 앞두고 둔전의 양성을 위해 8개월동안 산하 지방을 순회하며 실정을 파악하였다. 1928년 8월 만주 순방을 마친 김종진은 교민들의 참담한 생활실태는 물론 그 배후에 중국 토착지주와 자본가, 일제와 국제공산도당의 위협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이를 퇴치하기 위해 일제에 대한 항전대책과 함께 대공산당 행동통일 및 독립운동단체 상호간의 협동 등을 제안하고 이를 실행할 동지로 아나키스트들을 북만주로 불러 모으기를 제안하였다. 먼저 이을규가 만주로 향했다.⁴²⁾

이러한 만주에서의 독립운동계획안은 곧 신민부 개편으로 이어졌는데, 사상적 통일을 기하기 위해 在滿朝鮮無政府主義者聯盟을 조직하였다. 그 구성원으로는 김종진을 비롯해 李達과 李鵬海·金野雲·嚴亨淳·李俊根·李康勳·李德載 등이다. 이어 1929년 7월 韓族總聯合會가 결성되었다. 한족총연합회는 신민부 군정파가 아나키즘을 수용해 조직되었으며, 아나키스트들이 주요 간부진으로 참여했다.⁴³⁾ 그러던 중 1930년 1월 24일 일본 특무대의 사주를 받은 공산주의자 金奎煥에 의해 김좌진이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⁴⁴⁾

40) 《동아일보》 1929년 3월 19일자 ; 유기석, 『三十年放浪記:유기석회고록』, 151~157쪽.

41) 『又觀文存』, 167쪽 ; 최기영, 『1920~30년대 유기석의 재중독립운동과 아나키즘』, 2010, 150쪽.

42) 이을규, 『시야 김종진선생전』, 1963, 84~90쪽.

43) 한족총연합회의 강령과 조직 등은 이을규, 『시야 김종진선생전』, 88~90쪽 참조.

44) 박환, 『김좌진평전』, 선인, 2010, 171~172쪽.

김좌진의 암살 이후 독립기지 재건을 위해 이회영은 그해 11월 천진의 거처에서 만주와 각지의 동지들을 모아 비밀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의논을 거듭한 끝에 직접행동으로 만주기지 건설을 위한 자금을 만들자는 데로 중론이 모아졌고, 天津 일본 조계지 旭街에 위치한 중·일 합작은행인 中實銀號를 습격하기로 하였다.⁴⁵⁾ 11월 18일 오후 4시 은행에서 280여 元을 탈취에 성공한⁴⁶⁾ 아나키스트들은 상해와 북만주행으로 일행을 나뉘 떠나기로 하였다. 정화암과 백정기·오면직·김성수, 莊麒俊(일명 莊海平)과 결혼한 이회영의 장녀 圭淑과 동생 賢淑 등 15명이 무기를 휴대한 채 북만주를 향해 떠났다. 이때 운반할 폭탄과 권총 등은 규숙과 동생 현숙의 몸에 간직했다고 한다.⁴⁷⁾

이러한 아나키스트들의 노력으로 인해 한족총련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자, 민족주의 계열이 반발하여 1931년 2월 韓族農務聯合會와 韓族自治聯合會를 조직해 한족총련을 탈퇴하였다.⁴⁸⁾ 또한 그동안 잠재되었던 내부 주도권 갈등이 海林의 高嶺子 지역에서 농촌 계몽운동을 하던 백정기의 연극 내용 문제로 표면화되었다. 연극의 내용은 재만 동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단결하려는 목적으로 쓰여 졌지만, 한족총연합회 내의 민족주의계열 청년들은 만주 동포들에게 군자금과 군수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독립군의 명예를 손상하고 모독했다며 항의를 한 것이다. 연극내용이 불러온 여파는 이 연극을 기억하는 동지 李達이 1934년 쓴 회고문에서 짐작해 볼 수 있다.

氷天雪地の 북만에서도 그 病軀를 이끌고 남북을 유랑하던 중...군은 친필로 각본을 써서 관조적 태도로 민중 앞에 군림하는 만주독립군의 죄악을 폭로, 痛罵하여 관중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독립군에게는 반감을 샀다. 군은 그들의 증오의 적이 되었다.⁴⁹⁾

독립군의 권위적 행동을 비판한 이 연극이 불러온 여파는 정화암의 항변으로 잠잠해졌지만, 반대파의 공격과 피로 누적, 만주의 한파 등이 겹쳐 다시 그를 병석에 눕게 하였다. 결국 백정기는 1931년 5월 중순 상해로 돌아와 병원

45) 이규창, 『운명의 여진』, 151쪽 ; 정화암, 『어느 아나키스트의 몸으로 쓴 근세사』, 108~113쪽.

46) 《大公報》1930년 11월 19일자.

47) 이규창, 『운명의 여진』, 152~153쪽 ; 이강훈, 『민족해방운동과 나』, 133쪽.

48) 강수중, 『1930년대 북만지역 한족농무연합회의 조직과 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10,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22, 173쪽.

49) 上海 今月, <동지 백정기(구파)군을 추억함> 《흑색신문》 제30호(1933.07.31.)

에 입원하고 말았다.⁵⁰⁾

이어 일제의 만주 침략이 본격화하기 직전인 1931년 7월 한족총연합회의 주축인 김종진과 김야운·이준근 등이 일제 사주를 받은 반대세력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하였다. 石頭河子에 사는 김좌진의 계씨인 金東鎭의 집에서 김야운·이준근이 습격을 받았고, 김종진도 해림역 근처에 사는 趙永元의 집에 있다가 한족농무연합회 주도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던 朴來春·李白虎·李益和 등에 의해 납치되어 살해당하였다.⁵¹⁾ 이로써 ана키스트들은 상해로 돌아와 南華韓人靑年聯盟(이하 ‘남화연맹’) 활동을 이어가게 되었다.

남화연맹은 1930년 4월 20일 류자명과 유기석·張道善·정해리 등이 상해 프랑스조계지 金神父路 133호에서 조직하였다. 이들이 채택한 강령은 당시 일본의 ана키스트들의 기관지인 《자유연합신문》에 게재되었다.⁵²⁾ 1931년 9월 만주사변을 전후해 더 이상 국내와 만주, 일본 등지에서 활동이 어렵게 된 ана키스트들이 상해로 몰려와 대거 가입하였다. 정화암의 회상은 비교적 상세하다.

우리는 우선 북경에서 며칠 동안 쉰 다음 상해로 갔습니다. 이회영이 이미 와있었고 백정기도 결핵을 치료하고자 이미 와 있었지요. 여기에 양여주, 유자명, 김지강, 유서(유기석), 엄형순, 이용준, 나월환, 원심창, 박기성, 정해리, 이하유, 유산방 등 혈기왕성한 ана키스트들이 모여 들었지요. 나는 그들과 협의하여 1931년 9월 종전의 무련(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 산하에 남화한인청년연맹을 결성하고 그 아래에 남화구락부를 두는 한편 기관지 〈남화통신〉을 발간했습니다.⁵³⁾

이처럼 중국 전역에서 상해로 모여든 ана키스트들로 규합된 남화연맹의 맹원은 약 40~50명에 이른다. 남화연맹을 개편하는 회의를 개최했는데, 참석자

50) 정화암, 『어느 ана키스트의 몸으로 쓴 근세사』, 118~121쪽 참조.

51) 이윤규, 『시야 김종진선생전』, 117쪽.

52) 남화연맹의 강령은 다음과 같다. -. 우리들의 모든 조직은 자유연합 원리를 기본으로 한다. -. 일제의 정치적 운동과 노동조합지상운동을 부인한다. -.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한다. -. 가짜(僞) 도덕적 종교와 가족제도를 부인한다. -. 우리들은 만인이 절대적으로 자유평등한 이상적 신사회를 건설한다(《自由聯合新聞》제47호(1930년 5월 1일자).

53) 이정식 면담 김학준 편집·해설, 『정화암』 『혁명가들의 항일회상』, 민음사, 1988, 316~318.

는 이회영과 류자명을 비롯해 李達·李康勳·嚴舜奉·金野峰·羅月煥·吳冕植·金東宇·백정기·정화암·원심창·박기성·이용준·유산방과 이규창 등이다. 이 회의에서 이회영이 류자명을 남화연맹의 의장 겸 대외책임자로 추대하였고, 기관지 발간과 항일구국연맹 결성 등 활동방침을 결정하였다. 이어 연맹내부를 선전부(류자명·유기석·원심창)와 경제부(정화암), 실행부(백정기·오면직·이달·박기성·김성수·이용준·엄순봉·김야봉), 외교부(류자명·佐野一郎), 문서부(원심창·박기성·정해리·이규창) 등 5개 부처를 새롭게 조직하였다. 실행부의 책임자 역할을 맡은 백정기는 항일 격문과 전쟁반대 삐라를 만들고 각지 동지들에게 배포하였다.⁵⁴⁾ 이 무렵 그는 상해 步高里에서 원심창과 공동생활을 하다가 박기성·이용준과 함께 프랑스조계 金神父路 平原坊 중국인 집 2층으로 이전했다. 이어 10월 무렵에는 김성수·이달·오면직·엄형순·김야봉·이규창 등이 북경에서 상해로와 백정기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⁵⁵⁾

1931년 11월 상순 중국 국민당의 실력자이며 아나키스트인 王亞樵와 華均實이 백정기를 찾아와 항일공동전선을 펴자고 제의하였다. 11월 30일 밤 9시부터 상해 프랑스조계지 蒲石路 桂福里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백정기와 王亞樵와 華均實, 사노 이치로(佐野一郎, 일명 田華民·吉田) 등에 의해 흑색공포단(일명 Black Terrorist Patty, 약칭 BTP)이 결성되었다. 흑색공포단은 국제적 연합단체를 표방하여 각국인 모두 입회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제부와 선전부·정보부를 두며 각기 자국에 대한 파괴공작을 펼치기로 결의하였다.⁵⁶⁾ 제일 한인 아나키스트들의 기관지인 《흑색신문》(1933년 12월 21일자)에 실린 <B·T·P의 조직내용>이란 글에 당시의 상황이 자세히 실려 있다.

1931년말 창립 당시에는 동지 白貞基 군과 중국인 동지 華均實 군과 王亞樵 군과 일본인 동지 田化民이라고 하는 佐野一郎 군 4명이었으나 경제부 외에 정보부·선전부 등 상호책임을 분담하고 국제적 단체인 고로 각국인은 자국의 정보에 정통하니 자국에 대한 파괴공작을 위하여 자국인에 대한 동지규합과 정세연구 및 선전을 책임함이 편리상 유리하다는 결의에 기(基)하여 白貞基 군은 조선인부, 王亞樵

54) 경기도지사, <無政府主義者 李容俊 取調의 件>(1939.04.27.) ; 이강훈, 『민족해방운동과 나』, 149쪽 ; 이규창, 『운명의 여신』, 클레버, 2004, 218쪽.

55) 경기도지사, <無政府主義者 李容俊 取調의 件>(1939.04.27.)

56) 在상해총영사 보고서, <有吉公使暗殺陰謀事件, 黑色恐怖團, 南華韓人青年聯盟事件, 天津日本總領事館邸爆彈投擲事件>(1933. 3.)

군은 중국인부, 佐野一郎군은 일본인부를 각 부임하였다. 그 후에 露西亞部人 및 미국 통신원 폰손 군에 의하여 미국인부, 대만 林成材 군에 의하여 대만인부를 각각 담임 활동하게 되었고, 당시 조선인부에 열렬하고 활발한 청년 무정부주의자들 李守鉉, 金之江, 李達, 嚴亨淳, 楊汝舟 제 동지가 다수 가입하였으며 원심창 군은 남화한인청년 서기부서 활약하며 연락을 취하고 시시로 회합하여 극동 제 정국의 동향에 대하여 연구회를 개최하고 차에 대책을 강구하였다. 그리고 경제부의 활동으로 단원의 생활비 약 2천불(일본돈 약 6천원)을 준비하고 겸하여 하시이나 행동할 수 있도록 폭발탄·수류탄·대소형 권총까지 강매하여 두었다. B.T.P는 무정부주의 비밀결사의 특징으로 단원 상호는 고락과 희비를 같이하고 침식을 서로 근심하며 가정 이상의 따뜻한 우애와 존경과 신임을 가지고 이상을 위하여 그 얼마나 희생적이며 사상의 사정에 그 얼마나 백열화(白熱化)하였던가는 후진 무정부주의자들을 수천번 격려하고 오히려 여력이 있을 것이다.⁵⁷⁾

이처럼 흑색공포단은 백정기와 중국, 일본 동지들이 모여 만든 국제적 항일 단체로 출발했으며, 맹원이 늘어남에 따라 이후 조선인부, 중국인부, 일본인부에 이어 미국인부와 대만인부로 각기 확대되었다. 이후 백정기가 젊은 한인 동지들인 박기성(가명 이수현)·이용준·金聖壽(이명 김지강)·李達·엄형순·吳冕植(일명 楊汝舟)·이강훈 등을 가입시키며 행동기반을 마련하였다. 중국인부의 왕야차오는 화권스를 통해 1932년 10월까지 총 1,200원을 백정기에게 보내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 화권스가 1932년 10월 宋子文 암살사건으로 도피하며 전면에서 나서지 못하자, 정화암이 화권스의 역할을 대신해 1932년 10월 백정기가 요구한 도시락통 모양의 폭탄 1개와 수류탄, 권총 2정 및 실탄을 구해주는 등 물적 지원을 담당하였다.⁵⁸⁾

흑색공포단은 1932년 1월 천진에 군수물자를 싣고 입항한 11,000톤급 일청 기선에 폭탄을 던져 파손되고 일본 영사관과 병영에도 폭탄을 던졌다. 또한 푸젠성(福建省) 샤먼(廈門)의 일본 영사관에도 폭탄을 던져 폭파시켰고, 대일 굴욕외교를 거듭하던 국민당 정부의 외교부장 왕징웨이(汪精衛)를 저격했다. 하지만 그의 부관을 오인사살하는데 그치고 말았다.⁵⁹⁾

57) <B.T.P의 조직내용> 《黑色新聞》 제23호(1933년 12월 21일자).

58) 在尙海 總領事報告書, <有吉公使暗殺陰謀事件, 黑色恐怖團, 南華韓人青年聯盟事件, 天津日本總領事館邸爆彈投擲事件>(1933. 3.)

또한 남화연맹은 1932년 4월 29일 일본군의 천장절 기념식행사에 폭탄을 투척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할 책임자로 백정기를 결정했다. 상해를 어렵게 무력 점령한 일본군들이 전승을 자축하고 군인 사기를 고무시키기 위해 천황의 생일에 맞춰 대대적인 기념식을 열 것이며 이 자리에 일본 군부 요인들이 대거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연맹 지도부는 왕야차오를 만나 일본총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출입증을 받아 입장하기로 했다. ‘이 거사를 위해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매우 기뻐했던 백정기는 4월 29일 아침 완전한 준비를 마치고 출입증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기다리던 왕야차오의 출입증은 일본 총영사관의 엄중조치로 구하지 못했다. 그런 와중에 일본 종군기자로부터 윤봉길의 의거로 홍구공원이 아수라장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비록 의거를 놓치고 말아 남화연맹의 사기는 떨어졌지만, 윤봉길 의거는 함께 기뻐할 독립운동사상의 쾌거가 아닐 수 없다.⁶⁰⁾

이후 백정기는 항일구국연맹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홀로 만주로 가려다 피체되어 고문사한 이회영의 밀고자를 처단하는 일에도 실행을 맡았다. 65세의 노혁명가 이회영은 만주 일대에 지하조직을 결성하여 관동군 사령관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大連으로 가다가 1932년 11월 17일 일경에 피체되어 사망하였다.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백정기 등 동지들은 밀고자로 조카인 李圭瑞(일명 李太公)와 延忠烈을 쫓고 이들을 上海 외곽인 南翔 立達學院으로 유인하여 관련 사실을 자백받고 처단하였다. 밀정의 자백에 의하면, 이회영 외에 김구와 안공근·정화암도 체포 또는 암살의 대상이었다고 한다.⁶¹⁾

5. 육삼정 의거와 피체, 순국

윤봉길의 의거로 인해 부상 당한 주중국 일본공사 시게미즈 마모루(重光葵)를 대신해 1932년 7월 23일 아리요시 아키라(有吉明)가 주중공사로 임명되어 그해 9월 4일 상하이에 도착, 장개석 국민당 정부와의 교섭을 맡았다. 일본 정

59) 《黑色新聞》23호(1933년 12월 21일자) ; 梁一東, <元心昌傳> 《自由聯合新聞》 제93호 (1934년 8월 5일자) ; 《思想彙報》 제25호(1940.12) ; 이정규·이관직, 『우당 이회영 약전』, 105~107쪽을 종합.

60) 유기석, 『三十年放浪記:유기석회고록』, 국가보훈처, 2010, 225~230쪽 ; 정화암, 『어느 아나키스트의 몸으로 쓴 근세사』, 130~134쪽.

61) 이규창, 『운명의 여신』, 180~187쪽 ; 이정규, 『우당 이회영약전』, 108~110쪽 ; 『오면직 외 4인 판결문』(1936년 刑控 제119호)

부의 밀명에 따라 국민당 정부를 거금(4천만 엔)으로 매수하여 일본에 저항하지 않고 만주를 포기하도록 하는 교섭에 착수한 아리요시 공사는 10월 17일 북경에서 만주 군벌 張學良을 만난 후 11월 20일 상해로 되돌아왔다. 1933년 1월 27일 이미 熱河에서 일본군에 저항하지 않도록 조치를 마친 그는 “중국 정부의 급격한 전개에 제하여 제반의 사정을 외상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급후의 사태에 적응할 일본 신대중정책의 확립에 관하여 중요한 참고의견을 구신(具申)하기 위해” 3월 24일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⁶²⁾

만주사변과 상해사변 등 중·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아리요시 공사와 일본 거두들이 중국 군벌들이 상하이 공동조계지에서 회합을 갖는다는 정보는 남화연맹의 서기부 책임을 맡고 있는 원심창이 3월 5일 李梅路 華光醫院의 아나키스트 모임에서 처음 입수해 공유되었다.⁶³⁾ 상해 주재 일본총영사관 소속 경찰인 순사 야마다 가쿠베에(山田角兵衛)는 경찰서장 대리인 후쿠야마(福山三霍) 경부에게 올린 보고서에서 약 3주전부터 천진 일본 영사관에 폭탄을 투척한 원심창이 ‘일본과 미국의 관계 악화를 도모하기 위해 미국 총영사의 암살을 기도하고 일본 요인의 암살을 기하고 있다’는 정보를 탐지하고 밀정을 독려해 그들과 접촉시켰다고 한다. 밀정은 원심창이 향후 사용할 폭탄과 권총을 입수해 놓은 상태라는 사실과 이회영의 장남 李圭昌(당시 19세)과 동거 중이라는 사실도 알아냈다.⁶⁴⁾ 당시 총영사관 소속 야마다 순사는 상해의 일본어 신문인 《上海日日新聞》기자인 오키(沖, 또는 다마사키玉崎)라는 가명의 인물(佐野一郎)을 밀정으로 활용하고 있었다.⁶⁵⁾ 밀정 오키가 어떻게 원심창과 백정

62) 『新對中策具申次 有吉公使歸朝』, 『동아일보』 1933년 3월 18일 1면,

63) 육삼정의거의 전말에 대해서는 박찬승, 「1933년 상해 ‘有吉明공사 암살미수 사건’의 전말」,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0, 2017)이 가장 상세하다. 다만 박찬승은 아리요시 공사가 장제스를 매수하여 만주를 포기하고 일본군의 열하 침공에 대해서도 무저항주의를 택했다는 원심창의 주장에 대해 “당시 신문에는 그런 기사는 보도되지 않았으며, 그럴만한 정황도 별로 보이지 않았다.”면서 원심창이 “떠도는 소문이나 일본인 밀정의 말을 듣고 그렇게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원심창의 정보에 이어 본 거사를 기획·준비한 정화암과 류자명을 비롯해 이강훈·백정기 등 실행을 맡은 대부분의 동지들은 아리요시 주중 공사가 국민당 정부고관들과 회합해 한국인 투쟁을 탄압하려 한다는 사실에 대해 동의와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었다(이정식 면담·김학준 편집, 『혁명가의 항일회상·김성숙·장건상·정화암·이강훈의 독립투쟁』, 민음사, 1988, 333 ; 444쪽 ; 정화암, 『어느 아나키스트의 몸으로 쓴 근세사』, 자유문고, 1992, 142쪽).

64) 山田角兵衛, <無政府主義不逞鮮人の 有吉公使暗殺陰謀事件內査の件報告>(1933.3.17.).

65) 山田角兵衛, <無政府主義不逞鮮人の 有吉公使暗殺陰謀事件內査の件報告>(1933.3.17.). 밀정이 일본 신문기자 오키(佐野一郎)라는 사실은 정화암과 유기석의 회고록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상해 일본총영사관에서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보고·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은 2017년 일본총영사관 기밀문서가 공개되면서부터이다. 佐野一郎은 만년필 제

기에 접근했는지는 유기석의 회고를 참조할 수 있다.

이때 홍구지역에 사는 일본 ‘동지’ 다마사키(玉崎)가 자진해 나서서 아리요시 아키라의 행적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길 원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다마사키는 당시 일본어 신문 《上海日日新聞》의 기자였기 때문에 그의 직무를 이용하면 아리요시 아키라의 행적을 알아보는 것은 결코 곤란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백구파 등은 그를 믿었다....(중략) 표면적으로 보기에 다마사키의 행동거지가 성실하여 백구파 등의 그에 대한 믿음이 너무 지나쳤다. 사실상 다마사키는 일본 측 관방신문의 기자가 되었을 때 일찌감치 일본 총영사관에게 매수되었던 것이다.⁶⁶⁾

말 주변 좋은 저널리스트인 밀정 오키(佐野一郎, 일명 田化民)⁶⁷⁾는 1933년 3월 5일 오후 2시 상해 프랑스조계 대세계 뒤편의 廣州飯店에서 원심창과 이규창을 만났다. 이날 밀정 오키는 아리요시 공사가 3월 중 상해 공동조계의 요정에서 송별연을 갖는다는 정보를 알려주었고, 원심창은 이를 정화암에게 보고

작공으로 1922년 상해에 온 이후 1925년부터 鄧夢仙의 집 2층에 체재하고 있었다(『日本アナキズム運動人物事典』, 株)はる出版, 2004).

66) 유기석, 『30년 방랑기-유기석 회고록』, 국가보훈처, 2010, 233쪽.

67) 사노 이치로(佐野一郎, 당시 31세, 별명 吉田, 田化民)의 신상에 대해서는 일본 상해총영사관에서 1933년 3월 27일 작성한 <有吉明公使暗殺陰謀不逞鮮人一味檢舉에 관한件>에 보고되어 있다. “교토시립상업학교 졸업 후 1924년 上海로 왔다. 이후 北京·漢口 등을 거쳐 다시 상해로 왔다. 일시 上海日日新聞社에 기자로 취직한 적도 있지만 곧 퇴사했다. 중국인 사이를 전전하였고 무정부주의자의 도움을 받아 생활했다. 그런 한편 일본어 교사 등으로 호구를 삼았다. 昭和 2년(1927년) 무정부주의자 熊谷順二·松永麻一과 함께 모의하여 일본 요인을 암살하려는 목적으로 폭탄 제조를 기도하다가 발각 체포되었다가 증거불충분으로 방면되었다. 소화 2년(1927년) 12월 16일 향후 3년간 재류금지 처분을 받아 상해를 떠났다. 昭和6년(1931년) 상해로 돌아와 王亞樵의 권유에 의해 흑색공포단에 입단하였다. 당지에서는 여러 방문의 중국인과 조선인 동지들과 교류하였고, 동북의용군후원회 간사 吳山과도 아는 사이이다. 이번 사건에 직접 관계하진 않았지만, 흉폭행위를 감행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와 함께 1939년 4월 경기도지사가 경무국장 등에게 발송한『無政府主義者 李容俊 取調의 件』(1939.04.27.)이란 문건에도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다. “피의자 佐野一郎은 통칭 田化民으로 칭하고 교토 시립제2상업학교 졸업 후 大正 10년(1921년) 가와사키은행 교토지점에 은행원이 되고 동 12년(1923년) 2월 퇴직 후 上海로 가서 신문기자로 활동하던 중 무정부주의자 熊谷順二·松永麻一 등을 알게 되어 무정부주의에 공명하고 동인 등의 폭탄사건에 관계하여 검거되었지만, 예심 면소되고 상해총영사로부터 昭和2년(1927년) 12월 15일부터 향후 3년간 지나 재류금지 처분을 받고 귀향 중, 동 3년(1928년) 8월 몰래 상해로 밀항하여 남화한인청년연맹을 결성하고, 그 맹원으로서 활동 중 동8년(1933년) 3월 有吉공사 암살음모사건으로 일당이 검거되자 소재를 감추었다.” 일본 경찰은 밀정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려 했음을 알 수 있다.

하였다. 이에 당일 저녁 흑색공포단 합숙소인 상해 프랑스조계의 백정기 집(福履事元坊 6호)에 동지 11명이 모여 대책을 협의하였다. 참석자는 정화암과 백정기·원심창을 비롯해 흑색공포단 단원인 이강훈·이달·이용준(전리방)·오면직(양여주)·박기성·김성수·엄형순 등과 흑색공포단 단원이 아닌 정해리 등이다. 이 자리에서 원심창은 아리요시 공사가 “곧 귀국하기 위해 홍구의 모 요정에서 유지들과 송별연을 연다고 하는 것을 들어 알고 있다.”고 보고하였다.⁶⁸⁾

정화암을 비롯한 단원들은 서로 이 거사에 참여하겠다고 나서 정하지 못해 다음날 오전에 결정하기로 했다. 3월 6일 아침 거사 결행의 당사자를 추첨으로 결정하였는데, 전날 가장 먼저 자원했던 백정기와 이강훈이 제비뽑기 추첨으로 선정되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본 거사를 흑색공포단(Black Terrorist Party, B.T.P) 명의로 할 것과 폭탄 및 수류탄, 권총 등을 사용하고 제반 준비자금은 정화암이 조달하기로 했다. 정화암은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이 주고 간 폭탄 2개와 흑색공포단으로부터 받은 권총 2정과 탄환 20발, 그리고 수류탄 한 개를 준비했다.⁶⁹⁾

3월 11일 상해 南翔의 입달학원에서 류자명이 와서 원심창의 집을 방문하였다. 정화암은 거사자금을 찾기 위해 은행으로 갔고, 원심창은 류자명에게 자세한 거사계획을 설명한 후 신문에 선전할 기념사진을 찍었다. 류자명은 12일 성명서 작성을 완료해 이를 원심창에게 건네주었다고 한다. 백정기와 원심창·이강훈 등은 연회가 열린다는 육삼정 현장을 답사한 후 숙소를 상해공우로 옮겼다. 그리고 3월 13일 밤 실행에 앞서 연회장소를 답사한 후 거사를 위한 대기장소로 武昌路의 중국요리점 松江春으로 정하였다. 류자명은 거사 이후 보도용으로 사용될 선언문(<아리요시 공사를 폭살하는 이유서>)을 북경·천진·남경의 각 신문에 제공키로 하고 ‘흑색공포단’이란 이름을 사용하자고 하여 그대로 결정되었다.⁷⁰⁾ 이어 3월 16일 백정기 집에 보관되어 있던 폭탄 1개와 수류탄 1개, 권총 2정을 원심창의 집에 옮겨 두었다. 오후 2시 원심창의 집에서 류자명·백정기·이강훈과 함께 일본인 동지인 야타베 유지(谷田部勇司)⁷¹⁾와

68) 『원심창 등 3인 판결문』(1933.11.24.) ; 『이용준/전리방/천리방/노자영/임원식/진위인/이동춘 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40.01.19.)』.

69) 在상해 총영사보고서, <有吉公使암살음모불령선인일미검거에 관한 건>(1933.03.27.) ; 『원심창 등 3인 판결문』 ; 정화암, 『어느 아나키스트의 몸으로 쓴 근세사』, 144쪽.

70) 山田角兵衛, <無政府主義不逞鮮人の 有吉公使暗殺陰謀事件內查の件報告>(1933.3.17.) ; 『육삼정 의거 판결문(1933.11.24.)』 ; 이강훈, 『민족해방운동과 나』, 157쪽. 성명서는 일본 영사관 경찰에 입수된 것으로 보인다.

71) 야타베 무지(谷田部勇司, 별명 吳世民, 당시 30세)의 신상에 대해 일본 상해총영사관에서 1933년 3월 27일 작성한 <有吉公使暗殺陰謀不逞鮮人一味檢舉에 관한 件>에 ‘기

밀정 오키가 같이 회의를 하며 계획을 구체적으로 다듬었다.⁷²⁾

드디어 운명의 날인 3월 17일, 오전 11시경 원심창의 집에 정화암·오면직·백정기·이강훈·류자명·야타베 무지 등 7명이 모여 점심을 먹었다. 식사 자리에서 류자명과 정화암의 제의로 백정기와 이강훈을 위한 송별회를 열기로 하여 오후 4시반경 동지들과 회합하기로 했다. 4시반부터 중국 요리집(三和樓)에서 송별회를 가졌는데, 원심창과 백정기·이강훈을 비롯해 정화암·류자명과 이용준(전리방)·이달·엄형순·김성수·오면직(양여주)·야타베 유지 등 11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식사 후 재회를 약속하는 악수를 나눈 채 헤어졌다고 한다.⁷³⁾

송별회를 마친 후 류자명과 정화암·원심창은 거사 결행 후 백정기·이강훈 등과 만날 장소를 물색하러 나갔다. 이들은 오후 8시경 상해공우로 돌아와 백정기와 이강훈에게 거사 후 만날 장소를 알려주었고, 함께 오키의 전화를 기다렸다.⁷⁴⁾ 이 무렵 밀정 오키는 오후 5시경부터 상해 일본총영사관 후쿠야마 경부와 야마다 순사와 함께 체포를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거사 실행자들에 대한 체포를 제2과에 인계하고, 상하이 공공조계 공부국의 경무처 경찰과 함께 공동작전에 들어가기로 협의했다. 이런 작전 계획에 따라 밀정 오키는 밤 8시 30분경 상해공우에 있던 원심창 등에게 아리요시 공사가 9시 30분경 연회에서 나올 것 같다는 전화를 하고 9시까지 현장으로 오라고 했다.⁷⁵⁾

타 관계자'로 보고되어 있다. “고향에서 공업학교 졸업후 東京으로 나왔다. 가와지마(石川島)조선소에서 제도공으로 취직하는 한편 에스페란토 연구를 하였다. 그러던 중 중국인과 교제하여 그와 동행해 上海로 왔다. 電池제작업을 시작했으나 자금이 없어 실패했다. 이후 공동조계지 嘉興路의 清水溫生 집에서 기거했다. 소화7년(1932년) 5월 清水가 二兄敏雄과 같이 도박죄로 당관(영사관·역사)에 검거되었을 때 본인 역시 같이 인도되어 취조를 받은 후 석방되었다. 프랑스 조계 菜子路 榮仁里 16호에 무정부주의자 元心昌과 동거하였다. 이번 범행에 관계해 元心昌을 도왔는데, 六三亭 앞에서 망을 보다가 有吉공사 출문을 알고 산호를 보내는 역할을 받아 津津旅館 앞에서 白(정기), 李(강훈), 元(심창)과 같이 자동차에 합승, 松江春에 도착했지만 송강춘에 들어가지 않고 경계엄중을 깨닫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본범행의 공범이다.”

72) 의거 실행을 위한 세부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有吉 공사 암살 실행 참가자는 원심창·백정기·이강훈과 야타베 무지 및 오키 5명일 것, 2) 원심창·야타베 무지 등 2명은 연락 계로 참가할 것, 3) 백정기·이강훈 2명은 폭탄, 수류탄으로 有吉공사 암살을 시행할 것, 4) 오키는 有吉공사가 육삼정에 들어갈 때의 시각과 그 동정에 주의하여 돌아가는 시각을 보아 야타베에게 연락하고, 야타베는 백정기 및 이강훈에게 긴급히 연락을 취할 것, 5) 백정기·이강훈 2명은 연락과 동시에 실행할 것.”(山田角兵衛, <無政府主義不逞鮮人の 有吉公使暗殺陰謀事件內査の件報告>1933.3.17.).

73) 在상해 총영사보고서, <有吉公使暗殺陰謀不逞鮮人一味檢舉에關한件>(1933.03.27.); 『예심종결결정문』(1933.07.05.)

74) 在상해 총영사보고서, <有吉公使暗殺陰謀不逞鮮人一味檢舉에關한件>(1933.03.27.); 『예심종결결정문』(1933.07.05.)

75) 在상해 총영사보고서, <有吉公使暗殺陰謀不逞鮮人一味檢舉에關한件>(1933.03.27.);

이에 9시경 원심창과 백정기·이강훈·야타베 등 네 사람은 류자명으로부터 받은 무기를 각각 몸에 숨기고 西城자동차부에서 빌린 자동차를 몰아 육삼정 맞은 편에 있는 武昌路 271호 중국요리점 松江春 앞에서 내렸다. 원심창·백정기·이강훈은 2층 송강춘에 들어가 요리를 주문하였다. 하지만 이미 송강춘 주 위에는 잠복하고 있던 5~6명의 감시원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에 함정에 빠졌 음을 알아차린 세 사람이 탈출하려는 순간, 무장한 일본 영사관원 10여 명과 영국경찰 수명이 고함을 치며 총을 들이대어 부득이 피체되고 말았다.⁷⁶⁾

3의사의 피체 광경은 일본 총영사의 보고와 함께 당시의 장면을 직접 목격 한 송강춘 식당 주인의 인터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중국 현지에서 발간한 영자신문인 《North-China Daily News》에 거사 다음 날인 3월 18일에 실린 인 터뷰 기사내용에 의하면, “제가 정말 놀란 건 세명의 손님이 너무나 조용히 있 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모두 웃고 있었어요. 한명은 너무 웃어 얼굴을 얻 어맞기도 했습니다.”⁷⁷⁾라고 한다. 함께 자동차에서 내린 야타베는 혼자 송강춘 과 육삼정 사이의 골목길로 이동해 오키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육삼정 건너편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할 오키를 발견하지 못한 채 일본 경찰들 의 주변 경계가 삼엄해진 것을 감지한 후 그 길로 도주했다고 한다.⁷⁸⁾ 정화암 은 거사의 실패 원인에 대해 동지 중 누구를 탓하기 않고 밀정 오키를 믿은 것이 실수였다고 진단하였다.⁷⁹⁾

비록 거사는 불발에 그치고 말았지만, 애초 흑색공포단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상해와 북경·남경 등 각 신문을 비롯해 국내의 동아일보 등에 일제히 거사계획이 대서특필되었고, 그 이유가 상세히 보도되었기 때문 이다.⁸⁰⁾ 이로 인해 일본과 중국 국민당 요인들의 밀약은 세상에 폭로되었고

『예심종결결정문』(1933.07.05.)

76) 在상해 총영사보고서, <有吉公使暗殺陰謀不逞鮮人一味檢舉에關한件>(1933.03.27.); 『예심종결결정문』(1933.07.05.)

77) 《North-China Daily News》 1933년 3월 18일자.

78) 在상해 총영사보고서, <有吉公使暗殺陰謀不逞鮮人一味檢舉에關한件>(1933.03.27.). 야타베 유지는 이 사건으로 일본 경찰의 긴급 수배를 받았지만 피체되지 않았다. 그후 복건성으로 이주해 천주의 泮宮平民중학교에서 에스페란토를 가르쳤다고 한다. 전후 에는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日本アナキズム運動人物事典』, 株)はる出版, 2004, 658쪽).

79) 정화암, 『어느 아나키스트의 몸으로 쓴 근세사』, 144~146쪽. 유기석도 이 의거의 실패 원인이 아나키스트들의 허술한 조직운영 방식에 있음을 지적하였다(유기석, 『30년 방랑기-유기석 회고록』, 232~234쪽).

80) 『동아일보』 1933년 3월 21일자는 「유길공사암살계획 밀의현장을 습격」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상해신공원(上海新公園)사건 이래 일시 조용하던 조선○○당은 또 유길(有吉) 공사 암살을 계획하는 것을 상해총영사관 경찰이 탐지하

민중들의 시위가 격화되어 공작이 실패로 돌아갔던 것이다.⁸¹⁾

피체된 3의사는 일단 공부국 홍커우경찰서로 송치했다가 상해 일본총영사관으로 이송되었다. 4월 18일 백정기와 원심창·이강훈 세 사람에게 ‘살인예비, 치안유지법, 폭발물취체규칙 위반 및 건조물 손괴의 죄’ 등을 적용하였고, 소속 사범영사의 예심과정을 밟게 했다. 4월 17일 기소 예심에 회부되어 7월 5일 종결되었다.⁸²⁾ 상해총영사관은 항일 동지들의 보복전을 두려워한 나머지 규슈 서북단의 나가사키(長崎) 지방재판소로 재판을 회부하였다. 이에 따라 백정기 등 3인은 7월 10일 나가사키丸에 실려 지방재판소로 압송되었다.⁸³⁾

1933년 11월 15일 공판에서 일본 검찰은 백정기와 원심창에게 무기징역을, 이강훈에게 15년 징역을 구형하였다. 즉 원심창에게는 살인예비, 치안유지법, 폭발물취체법칙 위반과 함께 건조물 손괴의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검사의 논고에 대해 원심창은 “우리가 너의 손에 잡힌 이상, 총살을 하든지 교살하든지 너희의 자유이다. 우리가 정당한 행동을 하다가 죽음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우리는 아나키스트임을 인식하라”고 일갈하였다.⁸⁴⁾ 당시 중국에서 함께 한 동지가 일본의 한인 아나키스트 동지들의 기관지인 《黑色新聞》에 백정기에 대한 회고문을 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직 기억에 있는 백군은 絶壁을 날려 닥치는 猛虎의 위력같은 자태와 그 행동이 지금 무기옥중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평시에도 무섭던 황(黃)자 색의 그 눈동자는 지옥 속에서도 반역의 광채를 보이리라. 그러나 다년의 고통과 무조리한 생활의 결과는 열혈 혁명아에 積年辛苦 투쟁에 보답으로 증오스러운 폐군이 군의 광대건전한 기력을 태반이나 손실시키고도 그가 다시 출세키 어려운 적의 옥중에까지 영영 同隨하였으니..(중략) 오! 동지 백군이여! 조선에 자유가 오는 날까지, 세계에 혁명이 성취되는 날까지, 군을 구출하는 날까지 기다려다오.”⁸⁵⁾

고 17일 오후 6시 25분 그들이 홍구 무창로(虹口 武昌路) 중국요리점 송강춘(松江春)에 모이며 밀의하는 것을 특고과 무장경관 십수 명이 그 집을 포위하고 朱元勳(경기, 원심창의 오기) 이강훈(22, 강원) 백구파(28, 전남)의 세 명을 체포하고 암살용 폭탄 2개와 권총 3정을 압수하였다.”

81) <有吉明 암살준비 착착 진행> 《흑색신문》 제23호(1933년 12월 21일).

82) 박경식 편저, 『재류조선인운동』, 『재일조선인관계자료집성』2, 787쪽.

83) 『유길 공사 암살 계획한 피고 3명 長崎에 이송』 『조선중앙일보』 1933년 7월 11일.

84) 《동아일보》 1933년 11월 11일 ; <상해 흑색테로단원 3동지 무기징역> 《흑색신문》 제23호(1933년 12월 21일).

11월 24일 열린 판결에서도 법원은 검사와 동일하게 언도하였다. 다만 재판장의 판결문 안에는 일본인 밀정인 오키에 대해 잠시 언급한 대목이 나와 이 사건이 ‘역공작’과 ‘함정수사’에 의해 유도된 사건임을 알게 해준다.⁸⁶⁾ 세 사람은 변호사의 항소권고도 일체 거절하였다. 무기징역형을 받고 이사하야(諫早) 형무소에 수감된 백정기는 병고와 영양실조로 인해 1934년 6월 5일 39세의 일기로 순국하고 말았다.

6. 맺음말

백정기 의사가 옥중 순국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자, 제일 한인 아나키스트 동지들은 <絶痛！ 백정기군 遂獄死>란 제목의 글을 기관지 《黑色新聞》에 게재했다.

嗚呼！白君의 죽음！嗚呼！백군의 가슴에 타오르는 열정은 그 무엇이었으며 그의 뼈에 사무치는 설움은 그 무엇이었던가！ 그의 눈은 지배의 마수에 걸려 허덕이는 인류의 고민과 조선인의 참패(慘敗)를 보았으며, 그의 정신은 온갖 장애물을 퇴치하고 아나키 자유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확신의 결정(結晶)이었다. 백군의 그 열정과 백군의 그 이지(理智)는 그다지도 온량(溫良)한 백군으로 하여금 몸과 생명을 던져 테러리스트의 길을 밝게 하였다. 동지 백구파의 옥사가 세상에 파문(波紋)을 일으키자, 잔인한 현실에서 다만 테러리스트의 갈 길만이 남아 있음을 다시금 각성하였다. ‘상호연대’ 다만 이것만이 아나키즘 테러리스트의 순정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이 지배자에게 거탄(巨彈)이 아니고 무엇이나 !! 嗚呼! 白君의 순사(殉死)를 서러함은 백군의 본의가 아니었다.”⁸⁷⁾

상해 육삼정 의거를 함께 한 동지 이강훈은 백정기 의사의 인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85) 楊子秋, 「동지 백정기군을 회상함」, 《흑색신문》 제26호(1934년 2월 28일)

86) 박찬승, 「1933년 상해 ‘有吉明공사 암살미수 사건’의 전말」, 240쪽.

87) 「통절！ 백정기군 遂獄死」, 《흑색신문》 제29호(1934년 6월 2일)

백정기 의사는 나의 줄문으로 표현할 수 없는 청년결백, 의리, 강직, 신뢰, 의용 등 미덕을 갖춘 자유혁명가의 전형적 인물이었다. 그는 사지로 나갈 때는 항상 앞장서기를 원하였으며 동지를 아끼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씨는 최고의 휴머니스트라고 표현해도 지나친 평이 아니다. 어느 의미에서는 성인에 가까운 점도 없지 않았다....(중략)백 의사는 같이 옥고를 치르면서 자기는 폐병으로 얼마 살지 못할 사람이니 모든 것을 자기에게 떠넘기고 동지는 가벼운 형을 받도록 하여 빨리 사회로 나가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과 이상을 위해 다시한번 더 노력해달라고 하며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우겨댔다. 그러나 나는 그럴 수 없었다.⁸⁸⁾

백정기 의사의 유해봉환 문제는 해방으로 징역 15년만에 석방된 이강훈이 1945년 10월 일본에서 일시 귀국해 순국지사 약력보고를 위해 경교장의 김구 주석을 예방하면서 처음 논의되었다. 면담 자리에서 김구 주석은 이봉창·윤봉길 의사의 유골봉환에 대해 일본 현지에서 힘써주기를 당부했고, 이에 이강훈이 ‘육삼정의거’ 얘기를 꺼내며 백정기 의사의 유골도 같이 봉환되어야 함을 건의하였다. 이에 김구의 승낙을 받아 이듬해 2월부터 新朝鮮建設同盟(위원장朴烈, 부위원장李康勳)의 주도로 3의사의 시신 매장지 탐색과 유골 수습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나가사키의 이시하야(諫早) 형무소 묘지에서 백정기 의사의 유해를 수습하여 2월 29일 가미다(神田) 공회당에서 봉환회를 엄숙히 거행하였다.⁸⁹⁾

생존 아나키스트들의 모임인 자유사회건설자연맹도 조선농촌자치연맹·민우회 등과 공동주최하여 1945년 12월 22일 서울 태고사에서 이회영·신채호·김종진·백정기 등 순국동지들에 대한 위령제를 거행했다.⁹⁰⁾ 이어 1946년 5월 15일 大韓殉國烈士遺骨奉安會의 徐相漢 회장 등 18인이 이봉창·윤봉길·백정기의 유해를 부산으로 옮겨왔다. 3의사 유해는 국민장 일정에 맞춰 6월 16일 서울역에 도착해 태고사에 임시 안치되었다. 이후 7월 6일 3烈士奉葬委員會(위원장趙琬九)의 주관으로 효창원 묘역에서 13시 국민장이 거행되어 15시에 하관되었다. 장례식에서는 이강훈이 개회사를, 申鉉相이 제문을 봉독하였다.⁹¹⁾ 이로

88) 이강훈, 『민족해방운동과 나』, 제삼기획, 1994, 162~163쪽.

89) 「윤봉길·이봉창·백정기 3의사 故土에 유골로 개선」 《조선일보》 1946년 3월 18일 ; 이강훈, 『민족운동과 나』, 1994, 201쪽.

90) 「23지사 위령제 22일 태고사」 《조선일보》 1945년 12월 15일.

써 백정기의 유해는 서울 효창공원의 3의사 묘역에 윤봉길·이봉창 의사와 함께 안장되었다. 1953년 생가인 전북 정읍시 영원면 은선리에 순국기념비가 세워지고, 1963년 건국 공로훈장이 수여되었다.

논문접수일: 2025. 02. 22. / 심사개시일: 2025. 03. 25. / 게재확정일: 2025. 04. 24.
--

91) 「조기 아래 전시민이 애도」 《동아일보》 1946년 7월 7일.

참고문헌

1. 자료

『조선일보』, 『동아일보』, 『시대일보』, 『흑색신문』

在상해 총영사보고서, 1933.3.27, 1『有吉公使暗殺陰謀事件, 黑色恐怖團, 南華韓人青年聯盟事件, 天津日本總領事館邸爆彈投擲事件』.

경기도지사, 1939.4.27, 『無政府主義者 李容俊 取調의 件』.

2. 단행본

• 회고록

류자명, 1999, 『류자명 수기-한 혁명자의 회억록』, 독립기념관.

박기성, 1984, 『나와 조국』, 도서출판 시온.

朴永朗·金舞根 공편, 1949, 『독립혈사』 1권, 문화정보사.

심극주, 2002, 『나의회고』, 『20세기중국조선족역사자료집』, 중국조선민족문화예술출판사.

유기석, 2010, 『三十年放浪記:유기석회고록』, 국가보훈처.

이강훈, 1994, 『민족해방운동과 나』, 제삼기획.

이규창, 1992, 『運命의 餘燼』, 보연각.

이을규, 1963, 『시야 김종진 선생전』, 한홍인쇄소.

이정규, 1984, 『우관문존』, 삼화인쇄.

이정규·이관직, 1985, 『우당 이회영 약전』, 을유문화사.

이정식 면담·김학준 편집·해설, 1988, 『혁명가들의 항일회상』, 민음사.

정화암, 1982, 『이 조국 어디로 갈 것인가』, 자유문고.

• 연구서

김명섭, 2008, 『한국아나키스트들의 독립운동-일본에서의 투쟁』, 이학사.

김인호, 2018, 『심지와 불꽃-원심창 이야기』, 평택문화원.

김재영, 2015, 『전라북도 근현대인물이야기』, 전라북도교육청.

이민호, 2022, 『열도의 독립운동가 원심창 1』, 통일일보.

조광해, 2009, 『항일혁명투사 구파백정기』, 국민문화연구소.

3. 논문

김규원, 2018, 「白貞基의 생애와 의열투쟁」,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명섭, 2012, 「원심창의 항일 의열투쟁과 육삼정의거」,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9, 백범김구기념관.

박종연, 2014, 「일제시기 이강훈의 민족운동과 육삼정의거」, 『송실사학』 32, 송실사학회, 115-136쪽.

박찬승, 2017, 「1933년 상해 ‘有吉明공사 암살미수 사건’의 전말」,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0,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248쪽.

박환, 2023, 「1930년대 중국의 한인아나키스트와 한인아나키스트단체-남화한인 청년연맹의 결성과 육삼정의거」, 『인문학연구』 52, 송실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57-84쪽.

성주현, 2010, 「아나키스트 원심창과 육삼정 의열투쟁」, 『송실사학』 24, 송실사학회, 77-109쪽.

황민호, 2014, 「일제하 재중 한인 아나키스트 소산 이규창의 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0,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63-194쪽.

<Abstract>

The Research of Baek Jeong-gi's Anarchism and His Anti-Japanese Struggle

Kim Myungseob*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ife and anti-Japanese struggle of Baek Jeong-gi (1896 - 1934), who is buried in the tomb area of the Three Martyrs at Hyochang Park in Yongsan, Seoul, and to clarify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his burial. BaekJeong-gi was a representative practical intellectual who carried out armed resistance in the overseas independence movement.

Baek Jeong-gi's anti-Japanese armed resistance can be broadly divided into activities in Beijing, China, including his involvement with the East Asian Anarchist Federation, efforts to build an independent base with the Manchuria Hanjokchongyeonhaphoie, and his participation in the Shanghai 'Black Terror Group'. Notably, he served as the leader of the execution of the "Liusanting Rightous cause." a key operation to assassinate the Japanese Ambassador to China, Akira Aiyoshi, one of the three major overseas resistance efforts. BaekJeong-gi was arrested due to this incident and imprisoned in Nagasaki Ishihaya Prison in Japan, where he died on June 5, 1934.

His passion, spirit of sacrifice, hot camaraderie and humanity, which he showed on the front line of struggle, were admired and praised for inspiring and paraphrasing many. Baek's remains were recovered from the Nagasaki Ishihaya Prison Cemetery in 1946 after liberation. His remains were returned to Korea and a state funeral was held on July 6, 1946, at Hyochang Park, where he was laid to rest alongside Yoon Bong-gil and Lee Bong-chang.

Key Words : Park, Baek Jeong-Gi, Black Terror Group, Anarhism, Euiyeol struggle, Liusanting Rightous cause

* Dankook Univ.

